

나주 '에너지 자립마을' 베트남 간다

엔바이성·동신대 등 3곳과
에너지 신산업 분야 협력 협약
기술·제품 수출지원·교류 협업



베트남 엔바이성이 현지에 적용할 '에너지 프로슈머 자립마을' 체험센터가 나주시 봉황면 대실마을에 개소한 모습. <나주시 제공>

나주시 봉황면 대실마을에 구축된 '에너지 프로슈머 자립마을' 사업안이 베트남에도 적용될 예정이다. 나주시는 최근 동신대학교 혁신융합캠퍼스에서 베트남 엔바이성, 동신대, 배한기업투자협회(VKBIA) 등 3곳과 에너지 신산업 분야 상호협력 협약을 맺었다고 18일 밝혔다. 협약을 맺은 기관들은 양국 에너지 기업 진출 지원 등을 골자로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에너지 신산업 분야 기술과 우수 인력 교류도 진행한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봉황면 대실마을에 구축된 '에너지 프로슈머 자립마을'에 대한 베트남 엔바이성의 적극적인 관심에서 이뤄졌다.

나주시는 지난해 11월 동신대, 전남테크노파크, 배·한기업투자협회와 에너지프로슈머 자립마을 구축에 따른 글로벌 실증사업과 업무 협약을 맺었다.

에너지 자립마을에는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원 발전시설이 구축됐다. 경로당을 포함한 공용 시설 전력의 100%를 신재생 에너지로 충당한다.

주민들은 첨단 에너지 설비를 체험할 수 있고, 지역 에너지 기업들은 개발한 기술과 제품을 마을에서 실증할 수 있다.

베트남 엔바이성은 에너지신산업 리빙랩(실험실)을 구축하고, 기술·제품 수출지원, 교류 등을 위해 나주시와 협업 체계를 이어간다.

이 밖에도 베트남 엔바이성 계절근로자 도입과 기초자치단체 단위 자매도시 결연 등을 통해 농업, 관광, 문화 교류를 강화할 방침이다.

베트남 엔바이성은 수도 하노이에서 북쪽으로 약 2시간 거리에 있는 인구 85만명의 광역자치단체다. 전체 인구의 55%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 숙련된 계절근로자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나주시 측은 기대했다.

전 후이 푸안 엔바이성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엔바이성은 전체 대지의 65%가 산림으로 이뤄져 광물 자원이 풍부하며 최근 태양광, 풍력에너지

산업 육성에 힘쓰고 있다"며 "베트남에는 일할 수 있는 근로자들이 많을 뿐 아니라 전문대학원을 통한 여러 직업 훈련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주시는 2000년 역사 문화 도시이자 농업 중심 도시 기반에 더해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에너지 특화기업 등을 다수 보유한 미래 에너지신산업의 중심지로 떠오르고 있다"며 "미래 에너지신산업 세계 거점 도약을 목표로 에너지자립, 에너지 안보의 선제적 대응을 위한 이차전지 재사용 분야와 세계 최초 직류 산업 상용화, 에너지제로 탄소중립 센터 구축 등 신재생 에너지 중심 첨단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화순군 로컬푸드 출하 농가 품질·안전 교육

농약 허용 기준 강화제도 등 소개

화순군은 로컬푸드(직거래 농산물) 참여 농가가 연 1회 품질·안전관리 교육을 받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화순군은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적벽실에서 로컬푸드 참여 농업인 700여 명을 대상으로 품질·안전관리 교육을 했다. 이날 교육에는 도곡농협, 능주농협과 화순군의회 의원 등이 참석했다.

화순군은 지난 2022년 지역 농·축협과 협약을 맺어 농업인들이 연 1회 각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보수 교육을 받도록 했다.

이번에는 화순군이 진행하는 교육을 한 차례 수료하면 모든 로컬푸드 직매장 보수 교육을 인정하도록 했다.

이날 교육 참가자들은 '건강한 먹거리, 로컬푸드에서 만들어가요' 구호를 외치며 안전한 먹거리 기반 조성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화순군은 지역 대표 온라인 쇼핑몰 '화순팜'(hwasunfarm.com)을 소개하고 '농약 허용 기준 강화제도'(PLS), 로컬푸드 출하 요령 등을 교육했다.

구북구 화순군수는 "화순군과 농·축협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힘을 보태고, 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하도록 하겠다"며 "유통 단계를 줄여 소비자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제공하는 로컬푸드를 통해 우리 지역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알리고, 로컬푸드 출하 농가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화순=배영재 기자 byj@kwangju.co.kr



담양군과 청년정책협의회 회원들이 담양공용버스터미널을 찾아 행인들에게 담양군 주소 이전을 권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다양한 지원 받고 담양으로 주소 옮기세요"

'담양애(愛) 주소 갖기' 캠페인

담양군과 청년정책협의회가 최근 '인구 늘리기 캠페인'의 하나로 '담양애(愛) 주소 갖기' 운동을 펼쳤다.

참가자들은 유동 인구가 많은 담양읍 중앙로 상가를 돌며 행인들에게 담양군 전입 지원 시책을 소개했다. 실제 담양에 살고 있으나 주소 이전을 하지 않은 상인과 방문객들에게 주소 이전을 권했다.

이번 운동은 지역 청년층 인구감소 대응 필요성

에 담양군 청년정책협의회가 공감해 이뤄졌다.

담양군은 이밖에도 인구 증가를 위해 지역 고교·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군부대원 주거 관리비 지원, 공간꾸러미 지원 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담양군 관계자는 "인구 감소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캠페인 추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준 청년정책협의회에 감사사를 전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효과를 위해 관련 단체와 협력해 인구 늘리기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서울 청년 11명, 강진서 두 달 살며 창업 꿈 키운다

'넥스트로컬 지역 캠프' 진행

사업안 통과 최대 7000만원 지원

서울 청년 11명이 강진에서 두 달 살며 창업의 꿈을 키운다.

강진군은 지난 13일부터 서울시와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 넥스트로컬 지역 캠프'를 진행한다. <18일 밝혔다.>

올해 6기를 맞은 '넥스트로컬(Next Local)'은 서울시가 강진군 등 전국 19개 자치단체와 함께 추진한다.

서울 청년이 지역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 13일 강진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역 캠프에는 서울시 청년 예비 창업자 등 25명이 참석했다.

선배 창업가와 창업자는 간담회를 열고 강진을 이해하는 첫걸음을 뗐다.

'넥스트로컬' 사업에 선발돼 강진군을 선택한 청년 예비 창업자는 모두 6개 팀 11명이다.

이들은 1인당 100만원의 지역 자원조사 비용을



강진에서 두 달 살며 창업을 준비할 서울 청년 11명이 '넥스트로컬 강진군 지역 캠프'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서울시로부터 지원받는다. 지원금은 교통비와 숙박비 등으로 쓰인다.

참가자들은 강진에서 다음 달까지 두 달간 살며 강진에서의 창업 계획을 세운다.

예비 창업자들은 사업안에 맞는 강진군 자원을 조사하고 지역 사업 관계자를 만나 사업안을 구체

화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활동 결과를 토대로 1차 평가를 받는다. 우수 참가자로 선정되면 최대 2000만원을 받고, 최종 평가를 우수하게 통과하면 최대 5000만원의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i@kwangju.co.kr

장성군 65세 이상 대상 '남도안전학당' 운영

장성군은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남도안전학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남도안전학당'은 오는 8월 말까지 14개 마을 어르신 500여 명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고령 주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맞춤형 교육이다.

전남도 위촉 강사가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을 찾아가 수업을 진행한다.

남도안전학당은 지난 14일 북이면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 어르신 18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

했다. 약 50분에 걸쳐 화재 대처와 보이스피싱(전화 금융 사기) 예방, 농기계 사고 예방, 군민안전보험 이용법 등을 소개했다. 또 폭염, 지진 등 계절·시기·상황별 안전수칙을 전달했다. 민방위 대피 시설 위치와 방사능 주민대피 구조소 현황 등도 설명했다.

장성군 관계자는 "보다 많은 어르신에게 교육 기회가 제공되도록 확대 추진을 계획 중"이라며 "어린이,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안전 취약계층 교육'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kwangju.co.kr

세계최고 기독교 선교병원

광주기독교병원

Kwangju Christian Hospital

재단이사장
주계옥

병원장
이승욱